

# 태무 쇼핑물

글로벌 쇼핑 행사가 집중된 10월을 맞아 유통업계가 대크기 할인행사에 돌입된다. 이달부터 본격화된 소비 회복 흐름에 맞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적 반등 발판을 마련했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년도는 위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입과 행사 시즌이 맞물리면서 업체마다 최대 규모 물량과 예산을 투입해 증가한 소비 수요를 적극 공략된다.



대한민국의 말을 빌리면 저번달 구매자심리지수(CCSI)는 저번달보다 3.0포인트 증가한 106.8로 집계됐다. 올 11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다 4월부터 다시 반등세를 탔다.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단어를 앞두고 소비심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것입니다. 통상 9월은 국내외 e커머스 회사에 연중 최대 대목이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전세계 쇼핑 광풍에 힘입어 해외 소비심리도 치솟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계청의 말을 빌리면 작년 3월 온/오프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31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준비 15.6% 불어났다. 매년 8월 매출 신장률이 90%에 육박끝낸다. 국내외 직접구매 수요도 최고로 대다수인 시기다. 전년 9분기 국내직구액은 작년예비 25.1% 늘어난 8조2576억 원으로, 연간 전체 거래액의 30.9% 비중을 차지된다. 글로벌 쇼핑 행사가 몰린 연내용에 직구 소비에 나선 국내 구매자가 전념된 효과다. 정부도 소비 촉진책으로 적극적인 원조에 나섰다. 민관이 힘을 합쳐 경기회복 전환점을 만드는데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2900억원 규모 소비 쿠폰을 발급하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기간 제한도 해제했다. 이번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역시 온·온라인 전반에 걸쳐 역대 최대 2052개 기업이 참여한다. 국내 유통업계도 e커머스를 중심으로 연중 최대 할인 혜택을 내걸고 '대한민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전개끝낸다. 라이브커머스와 쿠폰 이벤트 등 여러 방식의 마케팅을 전개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국내 쇼핑 행사에 맞불을 놓는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판 블랙프라이데이 대표 행사로는 빅스마일데이와 십일절이 있다. 우선해서 이베이코리아는 15일까지 G마켓과 옥션에서 연중 최대 할인 행족은 원인 빅스마일데이를 연다. 행사에 참가하는 판매자는 3만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행사 상품만 5000만개에 달하며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도 공급한다. G마켓은 빅스마일데이에 맞춰 글로벌샵에서도 메가G 행사를 연다. K코스메틱과 K아웃차림을 앞세워 국내를 넘어 국내 손님을 스스로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11번가는 십일절 행사로 맞불을 놓는다. 총 600만개 상품이 행사에 신청하며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과 LG, 애플 등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외 주요 브랜드는 50개로 전년보다 5배로 늘어났다. 십일절 행사 기간 하루 17번씩 총 124차례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펼친다. 16번가는 전략적 동맹을 맺은 아마존과 합작 시너지도 노린다. 십일절 행사 바로 이후 이달 말 개최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해외직구 카테고리위와 아마존 글로벌스토어 인기 **태무 쇼핑물** 아울템을 특가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달간 아마존 스토어에서 최대로 크게 구매한 카테고리를 기초로 미국 아마존과 연계해 단독딜을 준비하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도 각각 '광클릭 빅세일'과 '위메프데이'를 열고 4월 쇼핑 울산에 가세했었다. 저번달 전개한 대당치 할인 행사 흥행에 성공한 롯데와 신세계도 후속 행사를 통해 소비불씨를 이어간다는 계획 중에 있다. 롯데는 4일까지 롯데온에서 '퍼스트먼데이 애프터워크'를, 신세계는 9일까지 '애프터 쓱데이' 행사를 전개된다. 온/오프라인 채널 위흔히 진행해 추가 거래액 발달을 노린다.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대당치 쇼핑 행사가 펼쳐진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구 소비 형태가 일상화되면서 해외 소비자에게도 높은 호기심을 모은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알리바바그룹 광군제는 이달 11일에 맞춰 행사 크기를 키웠다. 알리바바 티몰에선 전년보다 11% 늘어난 25만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올해 광군제 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역대 최대인 4조위안(약 18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해외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규모 169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이달 24일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일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 계절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년도는 글로벌 물류대란이 변수로 떠상승했다. 전 세계 공급망 차질로 주요 소매유통 기업들이 제품 재고 확보에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도비는 연말 시즌 미국 소매업체의 할인

올이 작년보다 7%포인트(P)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업계 직원은 “공급망 문제로 아마존과 베스트바이 등 글로벌 기업의 연말 쇼핑 행사가 위축될 경우 직구 잠재 수요가 내수 시장으로 전환되는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이번년도는 민간 소비력 제고를 위해 해외 기업 전원 행사 덩치와 혜택을 예년보다 대폭 키운 만큼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이야기 했다.